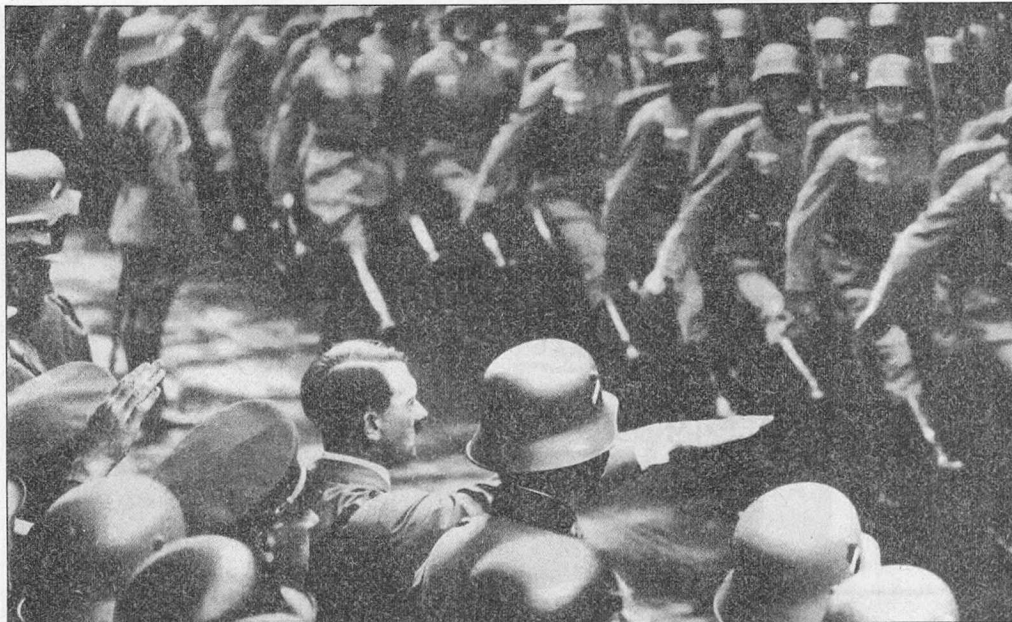


# 전통이론에 反旗 든 전쟁연구서들

## 2차대전 발발 50주년, 연구서출간 활기



제2차 세계대전 50주년을 맞아 각종 연구서, 도큐멘터리가 활발히 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 그에 따라 대전을 주제로 한 각종 연구서와 도큐멘터리가 활발히 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책은, 전쟁의 직접적 원인을 파헤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How War Came)와 연합군의 작전 이면상황을 드러낸 「戰時」(Wartime)의 두 권이다.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의 저자는 런던대학에서 국제관계사를 가르치는 도널드 카메론 와트 교수. 이 책에서 저자는 1938년 뮌헨회담에서 1939년 폴란드 침공까지 11개월 동안의 유럽외교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지도자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히틀러, 첼렐레인, 무솔리니는 물론이고 각국 대사와 수상, 외상, 장군 등 모든 정치가, 외교관들의 면모를 날카롭게 묘사한다.

와트교수는 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는 전통이론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가 베르사이유조약에서 독일에게 가했던 과도한 불이익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을 묵인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유럽인에게는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제국이 이미 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서방제국들이 소련을 침공하도록 독일을 은근히 부추겼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서둘러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어 스스로 방어하게 됐다는 설명 방식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한다. 즉 파시스트국가인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은 그때까지 스스로 공언해왔던 공산주의노선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서방보다 소련에 더 큰 책임이 있고 대전중 소련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와트교수는 한마디로 전쟁은 영국의 우유부단함과 프랑스의 모호한 태도, 소련의 의구심과 이탈리아의 어리석음, 미국의 불간섭주의와 무기력, 동유럽국들의 교활한 자국 중심주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 히틀러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됐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각국의 지도적 인사들의 편견과 무지, 비굴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책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역사는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가 하면 「戰時」는 또다른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곧잘 영웅적으로 묘사되곤 하는 연합군의 이면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1차대전에 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책을 써낸 바 있는 폴 퍼셀.

그는 무의미한 살육에 지나지 않았던 2차대전에서 연합군측이 지냈던 사기는 실체보다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비판한다. 병사들은 몇년씩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 극도로 이완돼 있었고, 그러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촌극도 벌어졌다는 것. 예컨대 아군기의 폭격을 받는다는 것, 거꾸로 아군기를 격추시키는 등의 무의미한 희생이 비일비재했음을 폭로한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예비훈련에서는 작전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7백명의 아까운 목숨이 헛되이 사라지기도 했다. 전쟁의 이면에 있는 이런 부조리한 국면을 도의시키고 영웅적 면모만을 앞세운 기존의 역사물들을 저자는 위선에 가득찬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전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부르짖는 저자의 논리는 무력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최근 독일과 일본의 역사가들이 스스로 역사적 죄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터

에, 「전시」가 표방하는 '사실성'이란 오히려 시대착오가 아니냐는 것이 일부 평자들의 입장이다.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환상'이라는 두개의 축 가운데 어디쯤에 역사를 자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의 傳記출간

정신분석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의 전기이 최근 출간됐다.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생 정신분석학 연구와 그 사회적 실천에 몸바친 의공 여성이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들이 이 전기에 쏟는 관심은 사뭇 크다. 「안나 프로이트 전기」(Anna Freud: A Biography)라는 제목의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웨슬리언 대학의 문학 교수 엘리자베스 영 브릴.

이 전기에 의하면, 안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유별난 애정을 느꼈으며, 이미 소녀시절에 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러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정신분석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아버지 밑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거친 다음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그녀는 주로 아동기의 발달구조 분석에 몰두하면서 상당한 이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생활에서건 학문에 있어서건 아버지에 대한 안나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학문적 동지이자 고민상대,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해주는 비서, 심지어는 번역가 역할까지 했는데, 만년에 프로이트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는 잠시도 병상을 안떠나는 충실한 간호원이기도 했다. 프로이트 사후 안나는 아버지의 학문적 업적을 계속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동료 분석학자들로부터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부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안나 프로이트가 확립한 이론은 아버지가 기왕에 설정해놓은 테두리에서 한치도 벗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안나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는데, 일부 험담가들은 아버지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또는 그 대리 만족을 위해 그녀가 정신분석학과 결혼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생전에 프로이트는 딸이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을 걱정했지만, 정작 딸의 구혼자들에게는 싸늘하게 대했다. 안나 역시 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관심을 자기로부터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에게 격렬한 질투심을 느꼈다는 고백이 이 전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수호여신」이었던 안나 프로이트는 결국 '이단적인' 정신분석학협회로부터 탈퇴하기에 이른 다. 만년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안나는 뇌졸중



안나 프로이트

으로 쓰러지고 1년 뒤 육체적인 비참함과 정신적인 고립감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

정신분석학 연구자들은 프로이트의 이론구조에 내재한 보편적 요소와 특수한 요소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프로이트 일가와 관련된 이같은 전기적인 연구서들이 더욱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 논쟁거리로 떠오른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쓴 한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이 오래된 논란은 다시금 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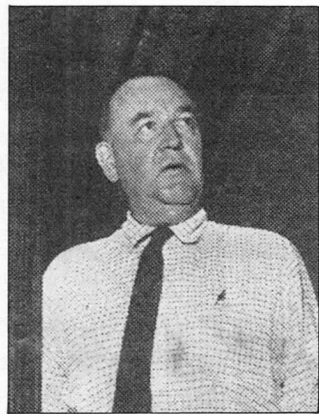
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에드먼드 브라운 주지사는 1959년부터 67년까지 59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 36명을 개소실로 보내야만 했다. 이 경험은 주지사 브라운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결국 「공적 처벌, 개인적 자비: 한 주지사가 사형대 앞에서 배운 것」(Public Justice, Private Mercy: A Governor's Education on Death Row)이란 책을 쓰게 됐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남녀사형수들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자기 자신과 벌여야 했던 외로운 싸움에 관해 고백하고 있다.

처음 주지사가 됐을 무렵 브라운은 사형제도를 단지 '난폭한 범죄에 대해 구속력을 가하는 필요악' 정도로 생각했다. 취임 이튿날 그는 존 크루커라는 사형수의 탄원서를 받게 된다. 사형수는 자기를 배신한 애인을 죽인 남자였다. 그러나 그 사형수는 오랜 정신병력이 있었으므로, 브라운 주지사는 무기형으로 감형시켰다. 사형 집행만이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이처럼 모든 탄원서를 사안에 따라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 신중히 처리했으나,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가장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1960년 봄, 카릴 체스먼 사건 때. 체스먼은 어린이유괴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최근 자신이 펴낸 책으로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먼드 브라운.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린드버그 법'에 따라 11년째 사형수로 복역중이었다. 마침 그 사형수가 옥중에서 쓴 3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동정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형 집행일은 결정됐고, 브라운 주지사가 요청한 60일간의 집행유예도 기각당한 채, 체스먼은 처형되고 말았다. 결국 브라운 주지사는 사형제도의 지지측과 반대측 모두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사형제도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그 끔찍한 야만성은 차치하고라도, 사형제도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도 그렇다고 악인을 몰러서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인이 반복됨으로써 사람의 목숨, 생명의 존엄성은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한 자신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석방된 후 다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이성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털어놓는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사형제도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사형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못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2,100명의 사형수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논쟁은 이처럼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독일음악사전의 최고봉 MGG 백과

음악의 나라 독일에는 음악에 관한 사전류가 아주 많다. 그 최고봉을 이루는 것은 MGG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음악, 그 역사와 현재」(전 17권). 이 방대한 음악백과의 보급판이 올 가을에 출간되리라는 소식이 다. 오리지널 판권을 가진 베렌라이터사와 포켓북 출판으로 유명한 dtv사가 공동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열릴 오는 10월에 간행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 음악백과를 맨처음 구상한 것은 베렌라이터사의 칼 페텔레 사장이 1942년 킬시 폭격의 와중에 서라고 한다. 그 다음해부터 사전의 울림말이 될 단어들을 모으는 기초 작업에 착수하고, 사전류와 단행본, 잡지, 카탈로그 등에서 초록을 만드는 일이 진행됐다. 작성된 카드는 컬대학 본관에 보관했는데, 불운하게도 1944년 본관이 화재로 소실되었

으나 편집진들은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그 카드를 구해냈다.

이 MGG의 특징은 수록된 항목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하다는 것. 음악 전문용어의 해설과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음악가에 관한 정보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음악의 물리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인 원리와 음악사, 음악철학, 음악사회학 그리고 연주회와 음악법규 연주의 실제와 교수법까지도 망라하고 있으며, 예술사와 민족학, 심리학, 신학 등 인접학문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 또한 이 백과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올 가을에 나올 이 방대한 백과사전의 보급판에 붙여질 정가는 780 마르크. 1990년 1월30일 이후가 되면 980마르크에 판매될 예정이다. 오리지널판이 4,600마르크인데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인 셈이다. 사실 종래의 MGG는 그 방대한 분량과 높은 가격으로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단지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비치된 것을 구경할 수 있을 뿐 개인은 감히 사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개인독자들에게는 MGG의 보급판이 상당히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김지원 기자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 목록 1989년 8월 27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RUSSIA HOUSE 존 르 카레(크누프) 글라스노스트가 철의 장막을 녹게 할 상상도 바뀐다	IT'S ALWAYS SOMETHING 질다 레이더(사이먼 & 셔스터) 자궁암으로 사망한 여성코미디언이 남긴 투병기	DOCTORS 에릭 시걸(벤티) 하버드 의대 1962년도 동창생 5명의 생애	THE RAGMAN'S SON 커크 더글라스(포켓)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자로 일하다가 영화 스타가 된 커크 더글라스의 자서전
2	POLAR STAR 마틴 크루즈 스미스(랜덤 하우스) 미소정보원들이 북태평양 공해상에 나타난 소련 선박의 움직임을 조사한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펠림(빌라드) 수필집	THE CARDINAL OF THE KREMLIN 톰 클랜시(버클리) CIA요원 잭 라이언은 미국 비밀 정보를 구해내기 위해 위협속으로 뛰어들다	PERFECT VICTIM 크리스틴 맥과이어, 칼라노튼(델) 무전여행중 캘리포니아 소음으로 납치되어 7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야만 했던 여성의 이야기
3	BLESSINGS 벌바 플레인(델라코르트) 결혼식 전날과 중요한 재판일에 자신의 로맨틱한 과거와 마주치게 되는 여류변호사	A WOMAN NAMED JACKIE 데이비드 헤이먼(라일 스투어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전기	SHINING THROUGH 수잔 아이작스(벨런타인) 윌스트리트가의 비서였던 여인이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스파이로 활동하게 되는 모험을 그린 작품	SENATORIAL PRIVILEGE 레오 다모어(델) 1969년 차파퀴디사건에 대한 보고서
4	THE JOY LUCK CLUB 에이미 탄(퍼트남) 이민 1세대인 어머니와 2세대인 딸 사이의 긴장과 문화적 유대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벤티)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THE SHELL SEEKERS 로자몬드 필처(델) 영국의 한 가문에서 삼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	TRANSFORMATION 휘틀리 스트리버(에이본) 지적능력을 갖춘 외계인과의 만남
5	A NIGHT IN SHINING ARMOR 주드테버로(포켓) 20세기 미국여성이 16세기 영국 귀족과의 조우를 통해 참사랑을 발견한다	FROM BEIRUT TO JERUSALEM 토머스 L. 프리드먼(파라, 스트라우스 & 지루) 뉴욕 타임스 기자가 본 아랍-이스라엘 충돌	ZOYA 다니엘 스틸(델) 러시아 혁명기 페체르스부르크에서부터 현대의 뉴욕까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여인의 이야기	THE ROAD LESS TRAVELED M.S. 퀘(터치스톤/S&S) 정신분석학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6	RED PHOENIX 래리 본드(워너) 제2차 한국전쟁에 참전한 세명의 미군들과 그들의 역할	THE GOOD TIMES 러셀 베이커(모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러셀 베이커의 회고록	FIREFLY SUMMER 메이브 빈치(델) 미국 백만장자가 아일랜드 시골 마을에서 로맨틱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LOVE, MEDICINE & MIRACLES 버니 시겔(페넬리/하퍼 & 로)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을 일킨다
7	WHILE MY PRETTY ONE SLEEPS 메리 히긴스 클라크(사이먼 & 셔스터) 가십작가의 살인사건이 뉴욕 하이패션계에 파란을 몰고 온다	SUMMER OF '49 데이비드 헬버스툼(모로) 48년 아메리칸 리그에 진출한 보스턴 레드 삭스팀과 뉴욕 양키즈팀	SWORD PGINT 해롤드 코일(포켓) 이란 핵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미소간의 경쟁	THE PUCHESS OF WINDSOR 찰스 힉렘(차터) 심프슨 부인 전기
8	JOURNEY 제임스 A. 미치너(랜덤 하우스) 4명의 영국귀족과 한명의 하인이 1897년 캐나다를 거쳐 클론다이크 황금광에 이르는 여행을 떠난다	PERSONAL FOULS 피터 골렌보크(케플 & 그라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농구부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보고	THE INDIA FAN 빅토리아 홀트(포켓) 유산을 상속받은 빅토리아시대의 영국의 한 성직자 딸 앞에 펼쳐지는 낭만세계	WASHINGTON GOES TO WAR 데이비드 브링클러(벨런타인) 제2차 세계대전중의 워싱턴의 사회적 정치적 모습
9	MURDER AT THE KENNEDY CENTER 마가렛 트루먼(랜덤하우스) 한 대통령후보 보좌관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열정	KING OF THE NIGHT 로렌스 리머(모로) 자니 카슨 전기	THE DARK TOWER ; The Gunslinger 스티븐 킹(시네트/NAL) 악당의 뒤를 쫓는 젊은이와 관련한 이야기 시리즈 첫권	GENERATION OF SWINE 헨터 S. 톰슨(빈티지) 1980년대의 정치와 대량문화에 관한 에세이
10	THE TEMPLE OF MY FAMILIAY 앨리스 워커(하코트 브레이크스 조바노비치) 5천여년에 걸친 인류의 다양한 관계들을 파헤친 소설	DAVE BARRY SLEPT HERE 데이브 배리(랜덤 하우스) 유머작가가 본 미국사	WIZARD AT LARGE 테리 브룩스(델 레이/벨런타인) 환상적인 영웅담 “신비로운 란도버 왕국”의 제3권	BITTER BLOOD 저미 블래스(오닉스) 부유한 세가문에서 발원한 9명의 살해사건 원인을 파헤친다